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장 13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신문사 소석관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62-3498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자선바자회 20~21일 개최

전교인이 회사품 1점 이상 헌납토록
상품권 구입하여 이웃동참을 권유

제2회 장애자 돕기 자선바자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 10월10일 오후 7시 기도회 및 바자회 참가에 따른 설명회가 있었다.

1부 예배는 오진국장로(구제위원장) 사회로 진행, 최대원장로의 기도, 성경 고전 13장 1~3절 봉독후 이종윤위임목사가「사랑과 교제를 통한 장애자 돕기」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백여명의 교역자, 교구장장로, 남여전도회 회장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바자회의 준비진행계획발표, 그리고 전교인은 회사품 1점 이상 제출해 줄 것과 상품권을 많이 구입하여 이웃에게 동참을 권유하고, 이번 기회에 태신자를 안내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것도 권장했다.

이번 바자회 목표금액은 약 7천만원이며, 이날 설명회 이후 바자회 성공적 집행을 위해 김영구목사 인도로 특별기도회를 갖기도 했다.

시무권사 단기교육

1차 10월 24일(화) 오후 7시

2차 10월 25일(수) 오후 1시

둘 중에 하루 선택

본교회 시무권사 단기교육이 오는 10월24일(화) 오후 7시~10시, 25일(수) 오후 1~4시 갈릴리움에서 개최된다.

시무권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이 교육을 마친후 취임식 예배를 드리게 된다.

교육내용은「구역과 권사의 역할」(구명신 전도사)「교회와 권사의 위치」(윤용규 목사)이다.

「예수안에서 온전한 가정」

10월 22일, 29일

가정세미나

교회학교 새가정부(부장: 박승준장로)가 주최하는 가정세미나가 오는 10월22일, 29일(주일) 오전11시부터 12시30분까지 소석관201호 새가정부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예수안에서의 온전한 가정」에 대하여 주선에교수(장신대학원), 「건강한 가정」-가정의 실제문제와 처방!-에 대하여 엄예성교수(서울여대 사회학과)가 강의를 맡는다.

일꾼 신앙세미나

제1교구 10월 27일 개최

제1교구(교구장: 오정현장로, 지도교역자: 김해규목사, 장영자전도사)는 오는 10월27일 오후 7시 교회 만나홀에서 제1회 일꾼 신앙세미나를 갖는다.

동교구 디모테 남전도회가 주최하고, 바울, 한나, 에스더, 마리아전도회가 협력주관하는 동세미나에는 구역권찰, 구역장, 협력구역장, 권사, 장로, 교구전도회 임역원들이 참석대상이다.

프로그램에 의하면, 1부예배(말씀: 김해규 목사) 2부 교구활성화를 위한 전도세미나 주제발표, 제3부 신앙세미나 등이다.

충현복지마을 충현수양관
건립위해 특별헌금 바쳐

충현제자훈련 제6차(10월 8~9일) 교육차 들어온 8교구 이은경성도가(교적번호 3586번) 충현복지마을 건립기금에 적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금반지 1점을 헌납했다.

아직 교회가 공식적으로 충현복지마을 건립에 따른 건축헌금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은경성도는 스스로 기도하는 중에 복지마을 설립의 좋은 취지에 찬동하여 기쁜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이다.

한편 세계선교훈련원(충현수양관) 건축을 위하여 2교구 이원영성도가(교적번호 88-437) 특별헌금을 바쳤다.

'89 충현제자훈련 성황리 진행

10월 9일 현재 6차에 걸쳐 1,599명 훈련받아
남은 기간 5회, 오는 11월 17일 모두 끝나

89년도 충현제자훈련이 성황리에 진행중이다.

지난 8월24일부터 시작된 「제자훈련」은 제6차에 걸쳐 1,599명이 수료된 것으로 중간 집계되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참석자들이 1박2일동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 하면서 충현교회 내의 신앙공동체로서 진리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본 훈련의 목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정에 의하면 훈련장소인 충현기도원에 도착하면 배정된 숙소에 짐을 풀고, 본당으로 올라가 묵상기도와 찬양시간이 20분간 진행된다.

계속해서 김광석목사가 인도하는 저녁집회, 그리고 계속이어지는 반별기도회를 통하여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튿날 새벽5시 기상하여 새벽기도회, 산상개인기도회, 아침제초, 그리고 식사이후 주제별로「진리」(김해규목사),「사랑」(김성윤 목사),「섬김」(송태근목사)에 대한 강의가

▲ 본교회 교회학교 예배다부가 개교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8일(주일) 칼빈홀에서 기념잔치를 가졌다.

카메라초점

▲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 대상 입상자인 이미화씨(장년1부)가 대회장 이종윤위임목사로부터 상장 및 부상을 받고 있다.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일 오후3시30분엔 장로부부들 70여명이 영동아파트 단지에서 노방및 축호전도를 실시했다.

현재 조직위원회 상황실에 들어온 교구별 태신자 전도 현황을 보면 14개 교구에서 10월11일현재 3,776명으로 집계되었다.

각교구별로 분류하면, 1교구 392명, 2교구 249명, 3교구 196명, 4교구 338명, 5 교구 222명, 6교구 127명, 7교구 137명, 8교구 151명, 9교구 196명, 10교구 300명, 11교구 373명, 12교구 272명, 13교구 152명 14교구 311명이다.

태신자 3,776명

10월 11일 현재, 전진대회조직위 발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가

안수집사부부, 남전도회회원

15일, 22일, 25일, 축호 노방전도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 조직위원회는 안수집사부부및 남녀 전도회 회원들이 노방및 축호 전도를 실시키로 했다.

안수집사부부와 이번에 새로 피택된 안수집사부부는 10월15일(주일) 오후 4 시30분 개나리아파트 지역에서, 바울, 디모테, 남전

도회는 22일(주일) 오후 3시30분 교회근처 지역에서, 그리고 한나, 에스더, 마리아여전도회 전회원들은 오는 25일(수)오후 1시 잠실 주공아파트 1, 2, 3단지에서 일제히 전도하기로 했다. 해당부서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이종윤 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 ⑮



본문 / 요 6:37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래 사람이 사람을 낳는 일은 부단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육신의 출생에 대해서 그 신비함이나 이치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치를 통하여 영적인 출생의 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출생의 원리를 제시하므로 모두의 귀가 이 원리를 듣고 모두의 눈이 이 원리를 보고 모두의 마음이 이 원리를 깨달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 효과적 부르심

아버지께서 잡으셨던 그 생명을 지옥으로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명들을 받으신 것을 신학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공중 에다 대고 "아무게야 이리 와라"하고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서 그 생명들은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이것을 인간편에서 보면 불가항력적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안받겠다고 항거를 해서 안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어코라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은혜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몇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믿음의 창조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다고 하는 말씀은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시다.

(1)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시작하신 것은 그가 끝을 맺습니다. 인간은 일을 시작해 놓고 힘이 모자라서 혹은 지루해서 아니면 그 일에 별로 가치를 못느껴서 중간에 도중하차를 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신학자는 구원의 도리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대답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학자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자기가 죽으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믿을 것인지 안믿을 것인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라는 학설을 펴냅니다.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모험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무도 안믿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믿고 한사람이 순교의 제물로 죽으셨나보다 하고 끝나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들이 반드시 자기에게로 올 것이라는 확신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예지'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므로 미리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에게로 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요 믿음을 만드시는 믿음의 저자시요 믿음의

완성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로 마지막까지 끌어들이는 방법은 사랑의 줄입니다.

예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랑의 줄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종이 됩니다.

미국의 식민지 시대에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인간 의지는 자기 생활과 환경에서 독립될 수 없다. 환경의 일부분에 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는 아무도 자유자도 없고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 자도 없다. 모든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지식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모든 조건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속에 빠질까봐 발발떨면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태극기 꽂고 몇분동안 애국가 한번 부르고 내려와서 히말라야 산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산을 정복했다. 암을 정복했다고 말하지만 인간이 정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미균에 꼼짝못하는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이기는 것 같으나 독립된 의지를 갖지 못하고 언제든지 끌려가는 모습을 자주 경험합니다. 인간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두 환경과 조건을 이기십니다.

교회는 영혼의 요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지배권을 믿게 될 때에 인간의 불가능은 선언이 되고 하나님의 전능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일에 불가능합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출생의 원리

(3) 사랑의 줄에 이끌림을 받은 자는 거듭남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①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에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새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되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귀를 가지고 들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명령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일어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유대인 처럼 오늘도 여기 저기서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내게 제일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어도 몇번 죽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졌을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께 보내어져서 예수님이 구원의 줄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전혀 자력도 아니고 자기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전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약 1:18).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낄 때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습니다(요 1:13). 혈통이란 피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피를 하는 것은 생명출생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는데 왜 나는 안믿어지는가,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왜 나는 믿는가에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곧 믿음의 결정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②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요건입니다(요 3:3).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보려면 영적으로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다'는 말은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번역되는데 헬라말로는 두가지 단어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팔린'으로 행동의 반복을 뜻합니다. 한번 한 행동을 두번하는 것을 팔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위로부터' 또는 '다시'라는 말입니다. 첫번째 행동한 사람과 똑같이 반복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하는데 영을 말합니다. 영을 불어 넣으니까 흙이 성령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범죄하므로 하나님께 쫓겨나고 죽게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는데 이것이 첫번째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요 3:5).

(4)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씨를 받게 됩니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알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여 영적인 새생명을 태어나게 합니다. 영아는 혼자두면 살지 못하므로 이 영적인영아를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 계속 만남이 선포되고 교회라고 하는 품안에서 말씀을 들은대로 실천되고 성장합니다. 생명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고 힘이 납니다. 힘을 다해 움직이니까 성장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손도 발도 움직이고 머리로 생각도 움직이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온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요람입니다. 영혼의 요람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 안에서 무력무력 자라서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상(최우수작품상) 중등부 실로암 성극단

교회설립 36주년기념 제1회 성극경연대회 성료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인 제1회 성극경연대회(대회장: 이종윤목사, 준비위원장: 손경수장로)가 지난 10월7일(토) 예선대회와 8일(주일) 본선대회를 거쳐 대상인 최우수작품상에 중등부 실로암성극단의 「스테반의 회개」(하영수 원작, 각색, 김광호 연출)가 차지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8개팀(중등부 1팀, 고등부 2팀, 대학부 2팀, 직전부 1팀, 청년1부 1팀, 장년1부 1팀)이 출연하여 열띤 경연을 겨루었다.

첫날 예선대회는 10월7일(토) 오후3시30분 갈릴리홀에서 진행되었는데, 대회에 앞서, 1부예배를 준비위원장 손경수장로 사회로 진행, 동준비위 총무부장 윤성철장로의 기도, 성경고후 4장5절을 봉독한후 동준비위 지도교역자인 윤용규목사가 설교했다.

제2부 경연대회는 진행부장 양종집사 사회로 진행, 제1회 성극경연대회 준비위원회 소개가 있은후 대회경연 순번 추첨이 있었고, 심사위원소개가 있었다.

이번 심사위원은 비중있는 성극심사를 위하여 초빙심사위원이 소개되었는데, KBS 중견탤런트인 안옥희 전도사와 박규식 집사 그리고 심사부장 박승준장로이다.

심사부장인 박승준 장로의 심사규정발표가 있었는데 심사규정은 ① 성극내용(작품),



▲ 남자연기상을 받은 중등부성극팀 스테반 역의 김성겸군



▲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인 제1회 성극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중등부 실로암 성극단의 「스테반의 회개」 장면.

단체상	최우수작품상 스테반의 회개 (중등부 실로암성극단) 우수작품상 사랑이 깃든 곳 (대학부 성극팀) 악마의 최후 (고등부 호산나성극팀)
개인상	남자연기상 김성겸 (「스테반의 회개」의 스테반역) 여자연기상 유인애 (「사랑이 깃든 곳」의 시골아줌마역) 연출상 김광호 (스테반의 회개) 특별상 김중대 (악마의 최후, 1인3역(원작·연출·주연))
장려상	왕중 왕 (직장전도교육부 성극부) 내 마음 그 곳에 (대학부 기쁨조)

② 성극표현(연출), ③ 무대효과(장치·조명·소도구·분장·음향 등등), ④ 청중반응, ⑤ 간접복음화산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었고,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성극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심사를 했다. 장장 5시간에 걸친 경연에서 4개팀이 탈락되고, 4개팀(중등

부, 고등부, 대학부 2팀)이 본선에 올라갔다.

그 다음날인 8일(주일) 오후 3시30분 갈릴리홀을 가득메운 관람객들 앞에서 본선에 올라온 4개팀이 열연한 결과, 대상인 최우수작품상에 중등부가 차지하고, 우수작품상에

는 대학부성극팀 「사랑이 깃든 곳」(톨스토이 원작, 김수경 연출), 그리고 고등부 호산나성극팀이 「악마의 최후」(김중대원작, 호산나성극팀 연출)가 입상했다.

장려상에는 직장전도교육부의 「왕중왕」(김보경 원작, 연출)과 대학부 기쁨 성극팀 「내마음 그곳에」(정재홍 극본·연출)가 차지했다.

개인상부분에서는 남자연기상에 김성겸군(중등부 스테반의 최후 중 스테반역을 맡음), 여자연기상에 유인애(대학부 사랑이 깃든 곳에서 시골아줌마역을 맡음), 연출상에는 중등부의 스테반의 회개를 연출한 김광호 선생이, 그리고 특별상에는 고등부 악마의 최후에서 1인3역을 한 김중대군이 각각 차지했다.

입상단체와 개인상입상자의 시상식은 오늘(10월 15일) 찬양예배시(오후 7시) 본당에서 있게 된다.

성극경연대회 심사소감

박승준 (장로·제1회 성극경연대회 심사부장)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오늘의 영화와 연극공연이 쾌락과 환락 및 오락일변도의 알파한 상흔에 젖어있는 이 즈음, 비록 개교회이긴 하지만 교회설립 36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첫번째 성극경연대회를 가짐으로 기독교 문화정립에 이바지하고 선교적 차원에서 크게 관심을 던진 수확이었다.

얼마전 교회안에서 극예술선교회의 연극공연을 한 바 있지만 이번 「연극 웨스티발」은 교회학교 각부서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8편이라는 예상보다 큰 관심속에 작품이 되었다.

예선과 본선 2일간에 걸쳐 발표한 결과를 보면 「스테반의 회개」(중등부)가 최우수작품상, 남자연기상, 연출상 3개부분의 영예를 차지했고, 「사랑이 깃든 곳」(대학부)이 우수작품상, 여자연기상의 2개 부분을 수상하였으며, 「악마의 최후」(고등부) 역시 우수작품상 특별상 2개 부분을 차지하면서 화려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영화가 스크린에 담은 종합예술차원의 영상미라고 한다면 연극은 관객과 무대가 일치되어 리얼리티와 생동감 넘치는 현장감을 살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영화는 갈수록 기술과 기교가 편집의 묘미를 살려 오락성과 예술성을 추구한다면 연극은 속임수없는 드라마 구도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영화의 출연자는 연기자라 불리고 TV방송의 출연자는 탤런트라고 불려지고 있으나 연극의 출연자는 배우라 칭한다. 모든 연기의 기본은 무대연기에서 감정표출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짜인새있는 극본, 결코 과장됨이 없는 연기진, 음향, 효과, 미술, 음악, 장치, 의상, 분장, 무대전환 등을 총괄한 연출력. 이런 삼위일체적 드라마의 기본구도가 어떻게 공감대를 극대화시키는지 분명 드라마로서의 극적구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심사위원(탤런트 작가인 안옥희, 중견배우 박규식 집사, 윤성철장로, 조해순집사) 등 5인의 심사위원은 아무리 제1회라 하더라도 상의 안배(한 부서에서 2편 출품이 2개부서 있다)를 지양하고 아마추어일지라도 전문성을 참작하여 가능성 많은 미래적인 성극의 발전을 위해 원칙을 정했다.

제한시간 15분은 한편도 없었다. 갈릴리홀이 무대와 객석의 호흡이 일치되기에 흡족한 최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반면 차회에는 출연진에 음향과 정확한 대사전달 위한 〈편·마이크〉 등 교회적인 차원에서 시설보완이 요청되기도 한다.

열과 성을 다한 스태프와 캐스팅들 그리고 재정과 기도후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그 노고를 감사하고 싶다.

이제 작품별로 심사소감을 적어본다.

스테반의 회개

제일 나이 어린 중등부학생들이 이렇게 손색없는 작품을 발표했다니 어떠한 말로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다.

창세기 1장의 내레이터도 첫째날부터 창조의 날마다 각각 내세워 관객의 마음을 끌어드리기에 흡족했다.

가장 복음적인 선교드라마였다. 스테반의

회개의 생동감, 십자가 사건의 리얼리티, 세련된 조명처리, 계산된 연출구도에 힘입어 스태프·캐스팅이 완전히 「하나」가 된듯한 수준 높은 작품.

감각과 느낌만으로 아닌 엑스트라의 작은 몸짓까지도 객관성과 상징성을 연결시키는 치밀함이 절실과 감동의 두가지 모두를 성공적으로 살려냈다.

김성겸의 연기력은 장래가 밝게 보였고 가롯유다(오윤걸)역도 개성이 돋보였다. 보다 많은 성도에게 보이고 싶은 감동이 가슴 깊이 남는다.

(흠)은 시간이 가장 긴 40분에 이른 것은 과잉욕심이었을까.....

왕중왕

예선 첫날 첫번째 공연된 이 작품은 8편중 가장 대작이라고 손꼽을만했다.

대사의 정확한 전달, 무대미술까지 삽입 가장 화려했던 코스튬·프레이밍(의상) 무대를 사로잡은 폭넓은 연기력, 첫 씬과 라스트 씬을 오늘(직장교육부)로 연결시켜 PR(?)까지 아끼지 않은 노력은 준비과정 및 연습과정 제작비 투입 등 특기할만하다.

다만 장려상으로 본선에 발표할 기회를 상실(?)한 것은 대회진행상 어쩔 수 없는 시간관계였을까?

13명의 출연진을 다 살리다보니 메시지의 부족, 선명한 주제부각이 아쉬워 공감대를 받았다.

사랑이 깃든 곳

유일한 번안물(톨스토이 작품) 이었는데 하루동안의 이야기를 장면의 전환없이 결코

지루하지 않게 표출한 감동과 짜릿함과 은혜를 받게한 연출력이 두드러진 주옥과 같은 작품이며 끝까지 최우수작품상에 경합된 작품이었다.

엄청난 대사와 주연연기상감으로 끝까지 경합했던 구두수선공 박노인(최희정역)의 다듬어진 소박하고 설득력있는 극중인물 묘사는 전체출연자의 연기양상들과 함께 우수작품상에 아깝지 않는 수작이었다.

자칫하면 진부하고 지루하기조차한 것을 스피디한 연출기법과 사과장수, 연기상 받은 시골아줌마(유인애)의 구수한 사투리와 눈시울마저 내게하는 차분한 연기의 도움을 얻어 대학생다운 실험무대였다.

사랑할 줄 모르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받게 한 작품이고 기획진에 박수보낸다.

내 마음 그 곳에

주제 〈내 마음을 누구에 드릴까?〉 하는 청년의 고뇌를 그린 장려상 수상작품.

흑백의 대조된 의상으로 주제표현, 다이나믹하고 울동이 넘친 악마(서인경역)의 등장, 연기자의 분장이 좋았던 이 작품은 배역선정의 미스, 즉 연하의 남자에게 오히려 불려야했던 어색함과 「왜?」 마음의 변화를 불려 일으킨 상황이 생략되었지만 조명효과가 극적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원고모집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모든 내용을 두고 해 주시면 정성으로 편집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주간충현 편집국

여전도협의회 "특강"

전도란 말씀을 받은 자의 반사작용이며
구원받은 자의 반사작용이다.

은사는 사명이며 받은대로 일해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메시야로 알았을
때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전파하며
“와 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선교사들이 와서 증거했는데 그때와 환경이
그들의 전도하기에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우리가 알 때에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여자들이 때문에 남자들과 주위 여건을 탓하
며 전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구약시대의 드보라 여선지자나 우리
나라의 여성교육을 시작한 Mary Scraton
여사같은 여선교사 등을 대표적 인물로 보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 여호수
아가 지도자를 잃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일하
는 도중에 은사가 임함을 알 수 있다. 감상하
는 크리스찬은 고목나무와 같으니 우리 여성

은 역동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
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했으니 많이 받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동주(신박·교수)

그리스도인의 전도사명

은 증거하지 않고 전될 수 없는 것이다. 사도
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증거하지 않고는 전될 수 없다.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나라에도 외국

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 여성들의 사역
을 생생히 기억해야 한다.

양가집 규수로, 22세 처녀의 몸으로 한국
에 선교사로 온 쿠퍼여사도 어느날 부흥회에
서 성령과 소명을 받지 못하면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고 회개하며 은혜
를 갈망하다가 신학을 하고 한국에서 선교사
역을 40여년간 한 것이며 새벽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한다. 초기에 우리나라가 부권사회
로 여성이 압박받을 때 많은 전도부인들의
축호전도와 여성주일학교 개설로 이땅의
여성들은 깨어 일어났고 오늘날 교회의 3/4가
여성성도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시무권사 · 피택안수집사 · 피택권사 교육안내

1. 시무권사 단기교육

- ① 일시: 1차: 1989. 10. 24(화) 오후 7시~10시
2차: 1989. 10. 25(수) 오후 1시~4시
② 장소: 갈릴리홀
③ 대상: 시무권사 전체

2. 제6대 피택안수집사 교육

- ① 일시: 1989. 10. 17~1990. 3. 13(19주) 매주 금요일 오후 7:00~9:00
② 장소: 소석관 301호 및 충현기도원
③ 대상: 제6대 피택안수집사 부부

3. 제34대 피택권사 교육

- ① 일시: 1989. 10. 17~1990. 3. 13(12주)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7:00~9:00
② 장소: 소석관 301호 및 충현기도원
③ 대상: 제34대 피택권사 40명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10월 13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42과 사랑과 이웃

성경: 요일 3:16-18

요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찬송: 405, 410장

우리의 이웃관계는 어떠한가? 아무 관심과 사랑의 교류없는 냉랭한 이웃관계
에 불과하지 아니한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사랑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특히 영혼과 육체가 곤고한
장애자들에게 더욱 우리의 사명이 크다. 어떤 사랑으로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
가?

1.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십자
가가 없었더라면 세상은 결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할 뻔했다.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이 세상의 여러가지 사랑이 그럴듯해 보이지
만 얼마나 불순한 이기적인 것들이 섞이고 도사리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
인류 역사상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이
다(롬 5:8).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봉사의 사랑이 절박하게 요청되는 이 시대
에 우리가 살고 있다.

2.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큰 희생을 하셨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목숨까지라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것인가! 형제와 이웃의 곤고한 모습을 보고도 또 그 곤고한 사정을 해결해

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재물과 능력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기
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직시한
현실에 우리가 지닌 것으로 대처하는 책임있는 자세만이 요청된다. 우리의 사랑
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내 이웃은 누구

유대인들은 제한되고 편협한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저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다(눅 10:25-37). 사랑의
대상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기타 가치관에 의하여 제한하고 좁히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다. 강도를 만나 긴급히 도움이 요청되는 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인종, 문화, 종교상 장벽을 뛰어넘는 봉사를 하였다. 진실한 사랑은 대상을 가리
지 않는다. 늘 주위를 돌아보아 곤고하여 도움이 요청되는 자에게는 기회를 놓침
이 없이 사랑으로 섬긴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
한다. 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마귀는
선을 악으로 갚는다.

세상은 선을 선으로 갚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는 자이
다. 우리 신앙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간증은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행이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누릴 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인 것이다(롬 2:7).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닮아가고자
한다면 선행을 할만한 모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 함께 생각합시다.

1. 참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2.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3.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문제해결 돕기를 거절한다면 어떤 사실
이 증거되는가?
4. 이번 장애자 돕기 자선바자회 기간 우리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
는가?

■ 공동기도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증거되
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빚진 자 된 저희가 곤고한 이웃과 형제
들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는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선한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